

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아파-인능 U+ 프로야구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ONE스토어 / Play스토어 / App Store ▶ [U+ 프로야구] 검색

“졌지만 행복했다” 남북 탁구 ‘웃음바다’

여자탁구 단일팀 작별하던 날

“고생했다” “다음엔 잘하자”

남측, 북 선수단 환송식

8월 아시안게임 단일팀 기대

‘아쉬움은 컸지만 눈물은 없었다.’ 스웨덴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 27년만의 여자탁구 단일팀으로 인한 감동을 줬던 남북 탁구 선수들이 밝은 표정 속에 헤어졌다.

남북 탁구 선수단은 6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스웨덴 할름스타드의 선수단 숙소인 킬리안스 호텔 로비에서 북한 선수단 환송 행사를 했다. 환송식은 한국 선수단보다 먼저 숙소를 떠나는 북한 선수단을 위해 대한탁구협회 관계자들이 제안해 이뤄졌다.

이날은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 남북 단일팀이 일본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눈물의 환송식을 가졌던 지 27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44일을 단일팀으로 동고동락했던 현정화와 북한의 이봉희는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마음에 눈물바다를 이었다.

하지만 신세대 여자 단일팀 선수들은 눈물 대신 환한 표정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북한 여자팀 감독인 김정은은 웃는 얼굴로 “고생했다”는 짧은 인사를 남겼고, 남측 감독인 황성국 감독은 한국 탁구인들에게 이름과 사인을 적어줬다.

한국 여자팀의 양하은(대한항공)은 단일팀으로 생활한 사흘 동안 단짝이었던 북한의 차효심과 잘먹차려 붙어 다녔다.

양하은은 “오늘도 옆에 있네”라며 말을 건넸고, 차효심도 “내가 좋아서 옆에 오는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양하은은 “둘이 키가 비슷해서인지 단일팀 된 이후 사진 찍을 때면 꼭 항상 내 쪽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리는 제18회 하계아시안게임을 100일 앞둔 7일 몇몇 종목 단체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참가 의향 조사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며 구체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했다. 희망 의사를 밝힌 종목은 탁구와 농구, 유도, 카누, 체조, 정구, 조정 등 7개 종목이다. 사진은 지난 4일(현지시간)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여자 단체전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한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으로 오히려”며 “연속 때 처음 파트너기도 했고 나이(24세)도 비슷해 금방 친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여자팀의 김남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 여자팀의 서효원(한국마사회)에게 “다음에 또 보는 거냐”고 여러 번 문자서 효원이 “확실히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맛있는 거 사달라”고 제안했다.

남북 단일팀은 여자 선수들만 이뤄졌지만 남자 선수들도 마치 한팀인 것처럼 어울렸다.

이상수(상무)가 북한 남자대표팀 최일의 어깨를 주무르며 “고생 많았다”고 말하자 최일이 “지기만 했는데 고생은 무슨 고생”이라고 대답하면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북한 남자팀은 이번 대회 7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했다.

한국 여자팀의 김지호(삼성생명)는 “다음에 볼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또 한팀이 된다면 지금보다 잘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남자대표팀의 동메달을 이끈 김택수 감독은 “우리가 이번 대회에 (여자 단일팀에 밀려) 존재감이 너무 없었다.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팀으로 해보자”고 깜짝 제안해 웃음을 자아낸 뒤 “조심하 잘 가시라”고 인사했다.

북한 선수들이 모두 버스에 오르자 한국 선수들이 일렬로 선서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떠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한 장우진(미래에셋대우)은 “마음이 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다시 남북 단일팀으로 만날 기대에 아쉬움을 달렸다. /연합뉴스

2년차 징크스 없다 박성현 시즌 첫 승

LPGA 텍사스 클래식 우승

박성현(25)이 시즌 초반의 부진을 털어내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박성현은 7일 미국 텍사스주 더폴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647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불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1언더파 131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현은 약전후 탓에 36홀 대회로 축소된 이번 대회 최종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5개, 보기 2개를 묶어 5타를 줄이며 우승상금 19만5000달러(약 2억 1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지난해 8월 피시픽 여자오픈 이후 9개월 만에 거둔 박성현의 통산 세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한국 선수 가운데에는 지난 2월 ISPS 한다 호수여자오픈에서의 고진영, 3월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박인비와 기아 클래식 지은희에 이어 이번 시즌 네 번째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성현은 지난 시즌 삼금왕과 신인상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쓸며 LPGA 무대를 평정했으나 이번 시즌 들어 부진을 이어갔다. 7개 대회에 출전해 두 차례 컷 탈락하고, 톱 10에는 한 차례밖에 들지 못했다.

이번 우승으로 박성현은 ‘2년차 징크스’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날려버렸다.

버디를 7개나 잡아내며 1라운드 선두로 올라섰던 박성현은 이날 2라운드에서는 1번 홀(파4) 보기로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4번 홀(파5)에서의 침착 이글로 단숨에 만회했다.

전반에서 버디 3개를 추가한 뒤 후반 첫 두 홀에서 버디와 보기를 맞아줬던 박성현은 아쉬운 버디 퍼트를 잇따라 놓치며 파 행진을 이어가다 마지막 18번 홀(파4) 버디로 기분 좋게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이번 대회에선 다른 한국 선수들도 선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더폴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불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클래식 최종 2라운드 18번 홀(파4)에서 침인 버디에 성공한 박성현이 우승을 예감한 듯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했다.

지난주 메디힐 챔피언십에선 우리 선수들이 톱10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으나 박성현을 포함해 5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김세영이 8언더파 공동 4위를 차지했고, 신지은이 7언더파 공동 6위에 올랐다. 고진영은 6언더파 공동 8위로 이번 시즌 여섯 번째로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이미향도 함께 8위로 대회를 마쳤다.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공동 8위다. /연합뉴스

매서워진 창으로 곰 잡는다

타이거즈 전망대

‘단군 매치’가 챔피언십필드를 달군다. KIA 타이거즈가 8일부터 안방에서 두산 베어스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11일에는 대구로 건너가 삼성 라이온즈와 주말 3연전을 벌인다.

다시 만나는 ‘호랑이’와 ‘곰’의 싸움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을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대결했던 두 팀은 지난 4월 20일 잠실에서 올 시즌 처음 만났다. 첫 시리즈의 승자는 2승 1패를 기록한 두산이었다.

빈틈없는 공격으로 워닝시리즈를 쟁겼던 두산은 여전한 힘을 과시하면서 7일 현재 SK 와이번스를 두 경기 차로 밀어내고 선두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타선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했던 KIA는 두산과 8.5게임 차까지 벌어지면서 6위에 머물고 있다.

주말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반등을 이룬 KIA는 분위기를 이어 ‘설욕전’에 나서게 된다.

앞선 만남 때보다는 KIA에 힘이 붙었다.

한승혁-임기영-팻단이 출격했던 첫 시리즈보다 선발진이 더 견고해졌다. 두산전에서 패전 투수가 됐었던 한승혁이 이후 두 경기에서는 12.1이닝을 2.19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으면서 선발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선발 수업을 마친 한승혁은 8일 양현종에 이어 9일 두산과의 리턴 매치에 나선다.

주중 홈서 두산전·주말 삼성 원정

탄탄해진 선발진 든든...불안한 뒷문 관건

■ KBO리그 팀순위 (7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35	25	0	10	0.714	0.0
2	SK	35	23	0	12	0.657	2.0
3	한화	34	18	0	16	0.529	6.5
4	LG	37	18	0	19	0.486	8.0
4	넥센	37	18	0	19	0.486	8.0
6	KIA	34	16	0	18	0.471	8.5
7	KT	35	16	0	19	0.457	9.0
8	롯데	34	15	0	19	0.441	9.5
9	NC	37	15	0	22	0.405	11.0
10	삼성	36	13	0	23	0.361	12.5

8일 마운드 힘에서도 KIA가 앞선다. 시즌 5승에 도전하는 양현종의 상대는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현도훈이다.

1993년생인 좌완 현도훈은 신인증을 졸업한 뒤 일본 교토 코쿠사이고교와 류슈 교리츠대를 거쳐 야구를 이어온 ‘낯선 선수’다. 독립리그 구단인 파주 쉐린저스를 거쳐 올 시즌 육성 선수 신분으로 두산 유니폼을 입은 그는 마운드 위기 속에서 선발로 기회를 얻었다.

선발진 안정세와 함께 타선의 상승세도 반갑다. ‘V11’의 원동력이 됐던 화력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특히 앞선 시리즈에서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범호와 안치홍이 모두 복귀하면서 타선의 무게가 달라졌다.

지난 1일 롯데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북

귀전을 치렀던 두 사람은 지난주 반등세의 중심에 있었다.

북구 두 경기 만에 홈런포를 쏘아 올렸던 안치홍은 지난주 6경기에서 결승 홈런 포함 두 개의 결승타를 기록했다. 복귀 후 6경기 타율은 0.391, 7타점도 기록했다.

이범호도 지난 6일 NC와의 경기에서 홈런 포함 시즌 첫 3안타 경기를 하면서 감 잡기를 끝냈다. 부상 전 11경기에서 7안타에 그쳤던 이범호는 복귀 후 6경기에서 7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수비는 물론 공격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 폭발력이 떨어졌던 최형우도 6일 큰 타구를 두 차례 날렸고, 이범기도 주말 3연전에서 10타수 7안타로 0.700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공세를 예고했다.

문제는 ‘뒷문’이다. KIA는 지난 3일에 이어 4일 눈앞에서 승리를 날렸다. 마무리 김세영이 3일 롯데 정준호에 2타점 끝내기 안타를 맞았고, NC를 상대했던 4일에는 9회 3실점을 하면서 5-6 역전패를 남겼다. 평균자책점이 9.42까지 치솟으면서 김세영은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지난 시즌 필승조로 맹활약을 했던 김은동도 기록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맹행’ 임창용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호랑이 군단’이 매서워진 창, 안정된 선발진의 힘으로 뒷문 불안을 잠재우고 두산에 설욕전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범호 “2군 다녀오면 웃음이 절로 날텐데”

덕아웃 T 특특

▲나중이 많이 던질 거잖아 = 지난 5일 NC와의 경기가 끝난 뒤 이범호는 후배 황인준 앞에서 속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황인준은 이날 12-4로 앞선 9회초 입단 5년 만에 데뷔전을 치렀다. 중견수 플라이와 1루수 땅볼로 투아웃을 만든 황인준은 이완재를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우익수 이범호가 외야로 공을 던져주면서 데뷔전 공은 행기 못했다. “어린 날 선물로 던져줬다”고 상황을 설명한 이범호는 “나중에 많이 던질 거잖아”라며 속스럽게 웃었다. 공은 행기지 못했지만 황인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어린 날의 날이었다. 이날 부모님과 5살, 2살 된 두 딸이 관중석에서 그의 경기를 지켜본 것이다. 황인준은 “초구만 잘 던지자는 생각이였다. 가족들이 야구장에 왔는데 데뷔전을 치르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활짝 웃었다. 이날 경기로 황인준은 KBO리그 ‘야구인 부자(父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빙그레(한화)와 LG에서 내야수로 활약했던 황대연이 그의 아버지다.

▲애들이 안 웃네? = 덕아웃의 분위기가 메이커 이범호다. 부상도 재활을 해왔던 이범호는 지난 1일 롯데 원정경기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20여 일 만에 1군으로 돌아온 이범호는 밝은 표정으로 경기장을 누볐다. 최근 아쉬운 패배가 이어지면서 다소 무거워졌던 분위기. “이곳이 그리웠다”며 복귀 소감을 말한 이범호는 “애들이 안 웃네? 한 달 정도 2군 다녀오면 저절로 웃음이 날 것인데”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이범호는 6일에는 복귀 후 첫 홈런 포함 3안타를 때려내면서 그라운드 분위기도 띄웠다. 이범호는 “(최근 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안 좋은 결과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민은 코칭스태프가 하는 거니까 우리 선수들은 개의치 않고 경기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10분이 목표입니다 = 잘나왔던 좌완 김유신은 데뷔전이었던. 고졸 투수 김유신은 지난 1일 롯데 원정에서 0-4로 뒤진 9회말 1사 1·2루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첫 프로 무대였지만 긴장을 할 시간도 없이 등판이 끝났다. 초구어 손아섭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고, 2구에 이범규를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3구에서 데뷔전이 끝난 김유신은 “TV로 봤을 때는 위압감이 많이 들었는데 막상 마운드에 오르니까 많이 긴장되지는 않았다”며 “이름있는 대선배들을 상대해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는 더 길게 10분 정도 던지고 싶다”고 웃었다. 그리고 김유신은 6일 두 번째 등판에 나

섰다. 이번에도 오랜 시간 마운드에 있지는 않았다. 김유신은 12개의 공으로 데뷔 첫 탈삼진 포함 삼자범퇴로 이닝을 종료했다.

▲광주만 오면 힘이 나나 봐 = NC 타선을 좌우하는 광주 아들들이다. NC 김경문 감독은 지난 5일 경기를 앞두고 “사실 좌완이 나와서 (좌타자인) 노진혁을 뺐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좌완 공도 많이 쳐봐야 하고 팀이 키워야 하는 선수다”며 “광주만 오면 힘이 나는 것 같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김 감독은 고민하게 했던 노진혁은 4일 3안타를 쏟아내면서 팀의 6-5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김 감독은 또 “NC에 광주 출신들이 많다”며 선수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도 했다. 김 감독의 이야기대로 5일 라인업에는 2번부터 5번까지 김성욱(진흥고), 노진혁(동성고), 나성범(진흥고), 모창민(광주일고) 등 광주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날 포수로 나온 신진호와 6일 시즌 첫 등판에 나선 이영범은 화순고 출신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챔피언십 필드 투어 참가자 모집

19일 SK전 선착순 40명

KIA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십 필드투어’ 제11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챔피언십 필드 투어는 경기장 및 선수단 시설 곳곳을 둘러본 뒤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오는 19일(토) SK전에 맞춰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그라운드 및 라커룸(원정

팀) 체험, 실내연습장 및 웨이트 트레이닝실 견학, 선수단 훈련 관전, 경기 관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투어가 끝난 뒤에는 K7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

참가자에게 사인물, 마스코트 블록, 예교백, 클레퍼 등 다양한 기념품도 주어진다고 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 모집은 9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문의 마케팅팀 070-7686-8043) /김여울기자 wool@